

식용 곤충 '맛있는 레시피' 찾습니다

남원시·원광대 RISE 사업단 조리법 발굴…28일까지 공모전
곤충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신공법 개발 농가 역량 강화

남원시가 지역 대학과 함께 곤충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식용 곤충 활용 음식 저변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와 원광대 RISE 사업단은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용 곤충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대상 1팀(150만 원), 최우수상 1팀(100만 원), 우수상 1팀(70만 원), 장려상 1팀(50만 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공모전은 남원시와 원광대가 함께 추진하는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RISE 사업과제의 일환이다.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원광대는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곤충 가공법을 개선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세미나·기술교육으로 농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식품으로서의 곤충 원료를 대량 생산

하기 위해 지난 2024년(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선정)부터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곤충산업을 바이오 산업 핵심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종합 컨트롤센터, 사육지원 시설, 가공센터, 임대형스마트팜 등 생산부터 가공까지 우아르는 곤충산업 핵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 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해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66억원 투입 축산업 약취 개선

민원 발생 잦은 지역 중심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남원시가 축산 약취 저감을 통해 괘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66억원을 투입, 축산약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약취저감 약품 지원, 가축분뇨 이용·운송처리비 지원, 약취 중점농장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축산약취개선사업(1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13억원), 축산용미생물제 보급 지원사업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이용 활성화사업(19억원) 등 지난해 축산 분야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성과가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축산 약취에 대한 민감도 상승과 귀농귀촌 증가로 주거지와 축산시설이 가까워지면서 약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167개 축산농가의 30% 이상을 깨끗



남원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

한 축산농장으로 개선하고 축산 약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장 10여곳을 대상으로는 약취관리 수준 진단을 거쳐 농장주의 개선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

속기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 약취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축산농가와 함께 적극 노력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유휴지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농업 근로자 기숙사 활용 다음 달 14일까지…겨울 관광 비수기 타개

정읍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고 정읍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정읍시는 농한기를 맞아 비어 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터슬롯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4주간 이어지며 2주씩 2개 기수에 걸쳐 운영된다.

각 기수에는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한국인 서포터즈 10명 등 40명식 80명이 정읍을 찾아 마을게 된다.

시는 가을에 집중됐던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에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 농업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않는 겨울철에 빈 공공기숙사를 참가자들의 숙소로 제공해 유동 시설을 방지하지 않고 관광 콘텐츠의 기반으로 전환한 적극행정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동학농민혁명 유적 등 지역의 대표 명소를 탐방한다. 또 겨울농촌 체험과 전통문화 습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별 SNS 콘텐츠 제작과 팀별 과제 등을 글로벌 청년의 시각으로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마켓, 설맞이 최대 30% 할인

이달까지 예산 소진시 종료…농가·입점업체 판로 확대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에서 설 명절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에게 고창군이 인증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지역 농가·입점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고창마켓 회원이라면 누구나 고창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행사는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명절 선물 세트부터 일상 먹거리까지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마켓'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창마켓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강화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의 설맞이 할인 행사 포스터.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장애인 바우처 개인예산제 도입

미사용 부문 급여량 20% 이내 개인 필요 사업 예산 전환

고창군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바우처의 미사용 부문 급여량 20%를 실적적으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최근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취지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로 통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 개인의 필요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고창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인원의 지역 자체 수급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활용이 불가함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이 자원을 활용해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유명해 팀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지역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8개→25개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려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해 진단 위로금'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추가된 주요 보장 내용은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3년까지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